

제주 민요의 후렴 “이여도”의 다의성과 이여도 전설에 대한 고찰

김진하*

<차례>

- I. 서론
- II. 이여도 전설과 민요의 후렴
- III. 근대소설 속의 이여도
- IV. 당신 본풀이 속의 여뎃할망
- V. 이여도 후렴의 다의성
- VI. 결론

I. 서론

1974년에 발표된 이청준의 소설 <이여도>¹⁾는 문학적 가치와는 별도로 문화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민요와 전설을 제주인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와 관련지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이여도 전설이 있었다는 것, 그 전설의 섬에 대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주도 사람은 숙명적으로 그 이여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등 소설 <이여도>에서 던지고 있는 주제들은 제주도 문화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여도 문제는 단지 지역의 설화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실재할지도 모르

* 양정고등학교

1) 이청준의 <이여도>는 1974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발표되었다. 앞으로 인용은 이청준 문학전집에서 <이여도>(1988, 일림원)에 따름.

는 섬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함으로써 지리학적 발견의 유혹마저 부졌다. 소설의 주된 동기가 파랑도(波浪島)라는 섬이 존재하느냐 하는 양지리학적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상향으로서의 전설의 섬 어도와 먼 바다에서 하얀 파도를 일으키는 미지의 섬 파랑도가 실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의 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소설 <이어도>가 흥미로운 것은 실상 1973년에 이루어진 파랑도 탐사를 생생하게 재구성하는 듯한 사실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이 표되기 전에 실제로 파랑도 탐사가 1951년과 1973년 두 차례나 기획되었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²⁾ 파랑도 탐사의 실패로 그와 동일시되곤 하던 이어도의 지리적 실재 여부도 미궁으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수중 음파탐색기 파랑도에서 이미 19세기에 영국상선 소코트라(Socotra)호가 좌초된 바 있었고 영국 해도에도 그것이 Socotra Rock 으로 표시된 적이 있기에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데가 있었다. 그래서 1984년에 KBS가 방송총국의 기획으로 탐사가 이루어져서 국토 최남단의 섬 마라도에서부터 140km 떨어진 북위 32도 7분, 동경 125도 10분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를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파랑도의 존재는 확인되었던 것이

파랑도라는 명칭은 하얀 파도의 섬을 뜻하는데³⁾, 탐사에서 발견한 수중 암초는 썰물 때에는 거의 수면 위치에 가까워져서 하얀 파도를 일으킨다고 했다. 이 암초의 발견은 제주도 사람의 관심을 넘어 국가의 과학 탐사의 중대 사건이 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1995년부터 이 암초 기반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6월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이 2004년에는 이 과학기지의 명칭을 이어

2) 이어도 혹은 파랑도에 대한 탐사와 관련 자료 색인 등은 김은희 편 <이어도를 찾아서>(2002, 이어도) 참고

3) 파랑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김은희 편, <이어도를 찾아서>의 19-23쪽 볼 것

기지라고 붙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여도와 파랑도를 동일시했던
 1점에서 보면 이여도 탐사의 기나긴 과정은 다 끝난 것이다.⁴⁾

민요와 전설 속의 이여도의 성격이 어떠한지 간에 이제 이여도는
 1쪽 난바다의 수중암초이자 그 위에 4백여평의 넓이를 가진 과학기지
 1 이름이 되었다. 전설의 섬이 현실이 되는 데에 과학이 하나의 확고한
 1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제주사람들의 전설 속의 이상향이라는 섬 이여
 1는 파랑도인가? 지금의 이여도가 언젠가부터 제주의 전설이 되었다는
 1 섬인가? “이여도의 전설은 파랑도의 실재에서 비롯된 제주도 사람들
 1 구전에 의한 또 다른 전설의 하나”⁵⁾인가? 파랑도 탐사가 결실을 본
 1 20여년이 지나고 거기에 과학기지까지 생겼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1 문제들에 확정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여도 노래와 이여
 1 2 전설은 제주사람들에게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여도와 관련된
 1 5란이 계속되는 까닭은 민요와 전설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여전히 명
 1 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여도 전설과 이여도 민요는 어떤 관계
 1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여도 전설을 근원으로 삼아 민요가 파
 1 생한 것으로 볼지, 이여도 후렴의 성격에서 전설을 구성하는 것을 예외
 1 적인 사례로 볼지 뚜렷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I. 이여도 전설과 민요의 후렴

이여도(혹은 이여도)가 관념인가 실재인가 하는 논란은 사실 파랑도

4) 예를 들어 2004년 12월 2일 연합뉴스를 보면, “이여도 분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
 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은 물론 영해의 경계, 자원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한국 해양연구원의 해양과학기지 건
 설 때도 중국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등 참고.

5) 이청준, 《이여도》, 66쪽.

의 존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옛날 제주사람들이 남양 먼 바다로 해양 활동을 하던 시절 어떤 해로에서 하얀 물거품이 이는 압초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난파되어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수중압초 파랑도가 발견된 이상 그것이 현재의 이어도 과학기지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파랑도에 대한 민간의 이야기는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에서도 매우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⁶⁾. 그러나 파랑도 문제와는 별도로 이어도의 전설은 더 근원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이다.

어느 문명에서든 먼 바다로 항해하는 일은 항상 난파와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위험을 안고 다니는 일이다. 그러기에 유토피아의 섬나라를 상상하는 일은 동서양 문명을 막론하고 있어왔다. 제주 사람들에게도 언제부터인가 이상의 섬 혹은 죽음의 섬으로서의 이어도 전설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노래가 불리어 왔다. 이어도⁷⁾에 대한 주요한 기록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일제시대 제주민요를 조사한 다카하시 토루(高橋亨)의 기록이다. 다카하시는 제주민요에 따라붙는 후렴구 '이어도' 혹은 '이허도'를 주목하면서 그것이 대정 지역의 전설에서 유래한다고 적고 있다. 다카하시의 채록은 역사기록처럼 시점이 명시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고려 시대 충렬왕 3년 제주도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 원나라로 공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공물선이 대정의 모슬포에서 출발하여 산동지역 강남을 오갔다는 것이다. 어느 해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 항해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를 슬

6) 이청준, 같은 책, 66-68쪽.

7) 본고에서는 이어도와 이여도는 혼용하기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이어도가 널리 알려졌으나 제주의 학자들과 민간의 소리에서는 이여도가 널리 쓰이고, 그 두 단어를 소리로만 들으면 이중모음화 연상으로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 소리의 차이에 변별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동안의 논의가 분분했던 바 본고는 두 개의 혼용에서 이어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떠난 그의 아내가 ‘이허도’를 애절하게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뒤로는 비슷한 처지의 과부들이 그 소리를 따라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온 섬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이허도(離虛島)라는 명칭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저승의 섬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카하시가 이 전설과 더불어 ‘이허도 후렴’을 담은 것으로 소개하는 민요는 다음과 같다.⁸⁾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반이엿 혼다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말앙 가면 늢이나 웃나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 흐면 나 눈물 난다.⁹⁾

이 가사에는 “이여도” “이엿” “이여” 등이 나오는데 다카하시는 이들을 각각 이허도(離虛島) 혹은 이허(離虛)로 채록하고 있다. 그런데 구문의 흐름상 이여도가 특정의 지명임을 뜻하는 구절은 “이여도가 반이엿 혼다”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엿’이나 ‘이여’는 이허도라는 지명의 약칭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뜻을 갖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무래도 의미가 불분명하다¹⁰⁾. 이허도의 지리적 위치가 어떠한지 간에 고대의 옛 노래

8) 다카하시 토루, 좌혜경 옮김 《제주섬의 노래》(1996), 43쪽.

9) 이 민요의 채록에서의 착오의 문제는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1998), 115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첫 구절 “해남을 보라”를 다카하시는 “해남을 보라 お日様見て行け”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진 김영돈의 채록이나 진성기의 채록 등을 보았을 때 착오임이 분명하다.

10) 강남과 해남은 현재 남중국의 지명을 나타내고 특히 해남은 해남도를 가리키고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다카하시의 전설과 이 노래가사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 원나라로 공물을 싣고 가는 배가 어찌서 떠나면 남중국의 바다로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지어 불렀다는 백수광부의 처에 얽힌 전설 연상시키는 강씨 부인의 전설에서 이어도를 유추하는 것은 몇 가지 점을 기지고 있다.

다카하시는 이 전설을 기원으로 두고 “이렇게 근본의 의미는 이미 했으나 지금에까지 ‘이여도야 이여도’는 여인들의 노래 앞이나 끝에 어 노래한다”¹¹⁾고 적고 있다. 다카하시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민요의 원에는 이허도 전설이 있다. 제주의 여인들은 이허도 전설의 유래는 르는 채 그저 그것을 후렴으로 줄곧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여도 후렴 위치가 자유로워서 전렴, 수렴, 후렴 등 비교적 자유롭게 끼어들 수 다. 다카하시는 이를 두고 이여도 후렴은 “섬의 노래에는 어디에서도 의로 붙여지는 가사”¹²⁾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카하시가 지적한 바와 이 이여도 후렴은 제주의 민요의 거의 모든 갈래에서 후렴으로 불러 이여도가 끼어드는 후렴은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비롯하 <타작노래>, <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멀치 후리는 래>, <꼴 베는 노래> 등 술한 노동요에 따라 붙는다.¹³⁾

그런데 제주민요에 이처럼 보편적으로 붙는 후렴인 이여도가 단 하나의 전설로 수렴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한 개인의 노래가 모든 민요 가락의 발생기원이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 제주섬의 옛사람들이 “이허도”라는 어려운 한자 교양을 염두에 “이허도”를 후렴으로 불렀다고 추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카하시의 주장대로라면 이여도 후렴의 여러 변이형들인 “이여 이여”, “이

항해를 했을까 하는 점이다. 남중국국의 항로는 고대 무역의 항로이기는 하겠지만 이 원나라에 바치는 공물선의 항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1) 다카하시 토루, 위의 책, 44쪽.

12) 다카하시 토루, 위의 책, 62쪽.

13)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하)-이론편》(2002)에 실려 있는 제14장 <제주도 드러난 이여도>(467-484쪽), 474쪽.

이여싸”, “이여도흥 이여도흥” 등은 모두 이허도(離虛島)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셈이다. 이런 다카하시의 주장은 민중의 지혜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여도 후렴의 보편성을 한 개인의 창작으로 보는 견해는 집단적 창작의 산물인 민요의 성격과 배치된다. 물론 민요의 구절이 개인의 즉흥성이나 구성 능력에 따라 새로이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후렴까지 만들어내고 그 후렴이 한 지역 민요의 거의 모든 노래에 붙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주장이 억지스러운 까닭은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Ⅲ. 근대소설 속의 이여도

이여도 전설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지식인들이다. 다카하시의 경우도 그러하거나와 근대소설가와 시인들이 일찍이 소설이나 시에서 이여도를 다루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이미 이시형은 <이여도>라는 소설을 일본어로 발표하였다. 김이옥도 <이여도>라는 시를 남겼다⁴⁾. 앞서 언급한 다카하시의 채록도 192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이미 그 시대에 이여도 전설은 제주의 지식인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로 1960년에는 정한숙이 <IYEU>를, 1974년에는 이청준이 <이여도>를 발표하고, 한결 같이 이여도를 전설의 섬, 상상의 섬 등으로 언급함으로써 이여도는 상상이든 실제하든지 간에 “섬”이라는 의미를 고착시켰다. 물론 그 뒤로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와 희곡에서도 이여도가 다루어짐으로써 ‘이여도’ 혹은 ‘이여도’가 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⁵⁾.

4)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2006), 62-63, 71-73쪽.

5)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1998)에서 3장 2절 <문학과 이여도>.

일제시대에 나온 이시형의 <이여도>는 다카하시의 민요조사와 다
가지로 아직 제주도에서 근대적인 교육이 확산되지 않고 민속학적
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여도가 소개되었다는 데 의
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세 편의 소설은 섬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
를 다룸으로써 이여도 개념을 거꾸로 확산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5
하면 제주의 설화에 대한 민속학적 조사에서 이여도 전설은 좀체 질
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돈은 이여도에 대한 연구에서 “‘이여도’
의 줄거리를 갖추어서 전하는 제보자는 제주도 내에서는 좀처럼 드
지 않는다”¹⁶⁾라고 적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여도가 처음으로
에 삽입된 이시형의 <이여도>에 나오는 민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

갈매기 나는 머나먼 저 세상
 님 있으리 복 많은 나라여
 해녀 실은 하얀 돛배
 마파람 뒷바람 받아
 오늘도 간다 님 사는 이여도에
 아 가고 싶구나, 나도야 가고 싶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¹⁷⁾

제주섬의 민요라고 소개된 이 가사는 실상 ‘이여도사나’라는 후
때고 나면 제주의 민요다운 데가 전혀 없다. 가사의 구성이나 음보를
면 매우 인위적으로 창작된 느낌을 준다. “갈매기 나는”, “해녀 실은
얀 돛배” 등의 어휘는 제주민요와 거리가 있다. 특히 5, 60년대에 채
제주민요에서는 이런 가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

111-131쪽.

16)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하)-이론편》, 476쪽.

1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문학-1900-1949》(1995), 김영화, 위의 책
쪽에서 다시 인용.

가의 감각으로 미화하여 지어낸 가사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의 <이여도>는 이여도가 전설의 섬이라고 단정 짓고 한편의 소설을 만들어냈으며 더욱이 그것을 잡지에 발표함으로써 근대적 교양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정한숙의 <이여도>나 이청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청준의 소설 <이여도>는 파랑도 탐사라는 구체적 사실을 담고 문학적인 형상화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획득함으로써 이여도 전설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였다.(물론 이청준의 소설이 제주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요구한다. 이여도에 매인 제주인의 비극적 숙명이라든지, 소설에 그려진 제주여인의 무기력함 등은 논란이 될 것이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가시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특히 근대교육을 널리 확산시켰다. 그리고 소설적 성공이 TV드라마나 영화로까지 이어지는 대중문화가 정착된 시기였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제주도 사람들 자신도 제주의 문화 전통을 구비적 전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교육 체계와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받아들이는 문화 환경 속에 놓여있었다는 말이다. 이여도 전설 역시 TV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송되었던 것이다¹⁸⁾.

이여도 관념과 근대적 교양과의 관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다. 김영화 교수는 1995년 2학기에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생 2, 3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여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표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여도를 상상의 섬이라고 적고 있다. 김영화 교수가 밝히고 있듯이 그들은 1974-5년 출생자들이다. 이청준의 <이여도>가 발표된 즈음 태어난 그들은 근대적 교육과 교양의 그늘 속에서 제주 전통의 구비전승 보다도 오히려 근대소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18) 김은희 편, <이여도를 찾아서>, 82-84쪽.

이 아닐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여도에 대한 제주도 대학생들의 인식과 문
품에 나타난 이여도 문제를 분석하면서 김영화 교수 자신은 이여
섬으로 단정 짓는 데 의구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는 점

“민요에 나오는 '이여, 이여...'하는 후렴구는 애초에 별 뜻이 없는 단순
일 수도 있다. 뗏돌을 돌리면서, 혹은 노를 저으면서 노동의 윤희유적 기
한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이여도>는
속의 섬이며, 저승이고, 이상향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¹⁹⁾

이 주장은 앞서 논의한 다카하시 토루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다
해서 이여도 후렴이 먼저이고 나중에 <이여도>에 상상의 섬이라는
념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IV. 당신 본풀이 속의 여돛할망

다카하시의 주장대로라면 이여도 전설이 생겨난 것은 6백여년 전
말의 일이다. 그러나 그만한 전설과 확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주
의 주요한 축인 당신화와도 관련을 맺었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분
따르면 제주신화는 일반신화, 당신화, 조상신화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연을 갖추었다면 모슬포 인근 어딘가에 있는 당에 얽힌 전설이
않았을까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여도 후렴이 제주도 전
로 확산되는 데는 특정지역의 노동요보다는 서사무가 속에 들어감
써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확산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
과연 서사무가연구자인 진성기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제

19) 김영화, 위의 책, 127쪽.

고 있다.

진성기는 《제주도 전설》²⁰⁾에서 이여도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간다는 출항의 동기는 다카하시의 채록과 같다. 제주의 북동쪽 조천마을에 고동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해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다가 이여도에 표착하게 된다. 그 섬은 과부들의 섬이라서 대단한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부터 고향이 그리워서 이여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 노래가사는 차례만 바뀌었을 뿐 다카하시의 노래와 같다. 그리고 진성기는 채록일자과 구술자의 이름, 나이를 <1958년 9월 조천면 조천리 정주병 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²¹⁾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이여도 전설이 제주의 서쪽 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인 조천리에도 일정한 변이형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조천리의 전설은 고동지가 이여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온 "여덧할망"(진성기는 이를 이여도의 할머니라고 주석하고 있다.)을 모시는 조천리 장귀동산당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 뿌리가 든든해 보인다.

진성기가 채록한 조천리 장귀동산 일리한집(이렛당)의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옛날 국마진상 바질 때
 고동지영감 창웃섬에 불떠 온
 여덧할망 일리중즈님.
 고동지영감이 물을 혼배
 식거, 대국 진상을 간
 오느디 강풍이 불이
 여도에 배를 불찌

20) 진성기, 《제주도 전설》(1992).

21) 진성기, 같은 책, 36쪽.

이 할망을 만났구나.
“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소리 존 살장귀로 여돛할망은
노래로 살고 풍류로 지네니,
“나랑 혼디 재주도로 기기
어떻혀우파?”
“감스허우다.
나 살을 도렐 뒤아줍서”
고동지영감은 여돛할망광
배을 타고 수진포로 들어오라
장귀동산 좌정하고
혼돌 육장 상을 받는 일리한집.
당미쉬 쇠할망 쇠할으방
세경태우리 거느리고
좌정훈 일리중즈님
제일 12월 말일 백매단속제
1월 14일 과세문안제
2월 8일 물불임제
7월 14일 마풀림제
10월 15일 시만국대제

<조천면 조천리 남무 54세 정주병 님>²²⁾

채록자의 이름이 같은 것으로 보아 진성기의 이어도 전설은 이 무가 사설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판본 사이에는 아귀가 맞지 않는 구석이 매우 많다. 본풀이를 기초로 전설이 구성된 것임이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오해와 지나친 확대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풀이에 따르면 고동지영감이 여도에 배를 대었고 거기서 만난 여인과 함께 조천포구로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당본풀이만으로는 “여도”가

22)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368쪽.

"이여도"와 일치하는지 확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진성기는 이여도 전설을 구성하면서 그것이 과부들의 섬이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이 본풀이로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가 된다. 결정적인 것은 이 무가사설에 이여도 노래가 덧붙을만한 맥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독할망은 노래로 살고 풍류로 지낸다고 했으니 꽤나 향락적이다. 거기에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이여도의 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이여도와 관련하여 채록된 전설이 두어 개 더 있다. 하나는 1975년 5월에 구좌읍 김녕리에서 채록되었다는 것²³⁾인데 이것 역시 내용의 전개가 혼란스러워 종잡기 어렵다. 시작에는 충청도의 마을이 등장한다. 한 남자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이 나 이여도로 가버린다. 그러자 어린 부인이 남편을 찾기 위해 선흘 숲에서 나무를 구해다 배를 만들어 시부모와 함께 '이여도사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여도로 찾아간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함께 돌아오다가 배가 난파하여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얘기는 구전자가 여러 화소를 혼합하여 억지로 꾸며내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애초에 충청도 운운도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용전개도 어설피다. 제주의 전승에 기대어 보자면 구술자는 해녀 배 짓는 노래에 있는 "요 네 착이 부러진들/ 선흘 곳에 남 옷이라(이 네 쪽 부러진들 어떠하냐 / 선흘 숲에 나무들 많지 않더냐)"²⁴⁾대목을 서사무가에 나오는 문전본풀이와 뒤섞다가 만 형국이다. "이여도사나"라는 후렴이 이여도를 찾아가자는 뜻이었다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칭준의 소설에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 편)》(1980), 203-206쪽. 이 구술의 표준어 정리는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하)-이론편》, 476-477쪽에 들어 있다.

24) 다카하시 토루, 좌혜경 옮김, 《제주섬의 노래》, 151쪽.

시인 고은의 채록²⁵⁾인데, 이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불확실한 지리정보에 채록자 자신의 감흥까지 곁들여져 한껏 신비로운 이어도 전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쨌든 죽음의 끝에서 보게 된 신비의 섬으로 제시된 이어도의 화소가 거의 고스란히 이청준의 소편입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그동안의 채록과 소설 등을 볼 때 줄거리가 제대로 갖추어진 이설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카하시나 진성기의 주장처럼에 근거하여 이어도 후렴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 물론 다양한 해양 활동을 하던 옛 주인들이 표류와 난파의 경험을 기로 남겼으리라고 가정할 수는 있다. 갖가지 표류와 표착과 난파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섬을 만났을 수도 있고 이상향의 섬이름의 섬을 상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섬의 이름을 이어도니, 여혹은 파랑도니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이 반드시 제주민요의 후렴구와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은 의 원리에 대한 몰이해로서 매우 추상적인 유추에 지나지 않는다. 는 이어도라는 말이 애매하고 중의적이라는 데 있다.

V. 이어도 후렴의 다의성

이어도 후렴이 이어도라는 섬의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몇 개의 채록이나 소설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모두 민요와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거꾸로 읽으면 모두 이어도 후렴을 하기 위해서 해석이 덧붙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어도 전설

25) 고은, 《제주도-그 전체상의 발견》(1976)에 실린 '또 하나의 이어도'. 김근 《이어도를 찾아서》(2002), 80-81쪽에서 인용되고 있다.

정은 오히려 이여도 후렴과 관련된 민요의 해석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여도 전설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민요의 가사는 유독 한 가지만 눈에 뜨인다. 그것은 다카하시가 인용했고 이청준이 소설에서 언급했으며 진성기가 전설집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다. 즉,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이어 이어 이여도 흐라”라는 후렴을 근간으로 하여 “이엇말 흐민 나 눈물 난다/ 이엇말랑 말앙근 가라/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반이엿 해라”가 붙는 형식이다. 이여도 후렴의 위치만 다를 뿐 위 가사는 대개 일치한다. 그런데 이여도 후렴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의 의미 작용은 혼돈스럽다.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 이여도가 반이엿 해라”(진성기본)이나 혹은 “강남 가경 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반이엿 흐다”(김영돈 본)는 가사의 구문이 우선 명확하지 않다. 해남 → 강남 → 이여도와 강남 → 해남 → 이여도의 원근이 우선 혼란스럽고 “-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인용구문은 더욱 그 존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바다 너머 강남과 해남을 떠올리는 이런 가사는 풍문 같은 분위기와 신비감을 조장하지만 그 간접 인용 구문 속에서 이여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사라져 버린다. “이여 이여 이여도”나 “이엇 소리”라는 말만으로 가창자는 눈물이 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이 가사에서 마지막 구절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반이엿 해라”가 빠져 있다. 이여도의 지리적 좌표를 짐작케 해주는 가사가 소설에서는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소설 속에서 화자는 문체가 된 민요의 가사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⁶⁾

어쨌든 요점은 이 가사에서 이여도가 섬인가 하는 것인데, 이여도를 섬으로 보는 해석은 두 가지 사실에서 추론된 듯하다. 첫째는 이 가사에

26) 이청준, 《이여도》, 73쪽. “가사도 분명치 않았고 곡조도 특별히 귀에 쫄 만큼 구성진 대목이 없었다.”

서 “이여도”가 바다 너머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 너머 있다고 반드시 섬이라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둘째는 이여도의 “도” 섬 도(島)자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이 노랫말이 한자의 양 속에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 대목의 ‘이여도’, ‘이엿’, ‘이여’ 등의 리들을 다카하시는 이허도(離虛島)로, 진성기는 한결같이 ‘이여도’로 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가사에서 “이여도 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여도”라는 말을 하면 눈물이 나니까 “이여도”라는 말은 하지 말고 라면서 후렴에서는 “이어 이어 이여도 흐라”라고 부르는 심사는 그러면 그리움과 고통이 역설적으로 엉키어 있는 고도의 시적 표현이 봐야 옳은가.

이여도 전설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이여도”라는 말 자체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여도’이든 ‘이여도’이든 아니면 ‘이허도’이든지 옛 제주인들이 어떤 섬을 두고 한자 교양으로 뒷받침된 “도”를 붙 불렀다는 가정이다. 그런데 제주 인근에 산재한 섬들을 부를 때는 무슨무슨 “섬”이라고 부르는 제주 사람들이 어째서 이여도에만 구 ‘도’를 붙여 불렀을까. 혹시 그것이 강남, 해남 등이 있는 중국의 어떤 명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제주의 전설도 아니지 않겠

“이여도” 해석에서 핵심은 끝에 붙은 “도”의 기능과 의미이다. 이를 섬으로 해석한 가사는 그 도를 섬 도(島)자로 해독해낸 것이다. 데 “이여도 사나”의 “도”는 정녕코 섬을 뜻하는 말일까. “이여도” “도”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후렴 박자를 맞추기 위해 붙인 뜻 없는 소리로서 의미를 강조하는 보조 능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도”의 소리와 의미가 혼용되어 애매 우이다. 그리고 셋째는 섬으로서의 “도”로 보는 것이다. 이여도의 “ 섬으로 보는 경우를 맨 나중에 논의하고자 하는 까닭은 위의 세 가 우가 언어작용에서 의미의 파생과 확장의 과정과 일치한다고 보기

이다²⁷⁾.

먼저 이여도의 도를 의미 강조 보조사로 보면 이여도는 쉽게 풀이된다. 민요 이여도 소리의 후렴에서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라는 대목은 동일한 종류의 민요에서 나오는 후렴 “여씨 여씨”나 “이여씨 이여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짧은 박자의 “여씨 여씨” 가락에서 조금 길어지면 “이여씨 이여씨”로 늘어나고, 좀더 완만해지면 “이여씨나 이여씨나”가 된다. 이것이 더욱 느리고 길게 이어진 것이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인 것이다.²⁸⁾ 이렇게 보면 맨 나중의 것인 “-도”나 “-나”는 어디까지나 박자를 맞추어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뜻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씨 여씨” → “이여씨 이여씨” → “이여씨나 이여씨나” →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로 길어지는 과정은 노동에서 긴박감의 정도와 일치하는 박자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때 “도”는 어린이 노래 <반달>에서 “가기도 잘도 간다”와 같이 반복적이지만 그만큼 소리를 강조할 뿐 의미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이여도 후렴 노래에서 “이여도사나”에 이르면 박자도 가장 완만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소리의 성질도 부드러워져서 “-씨”소리도 “-사”소리로 약화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서 보면 “이여도사나”에서 “사나”의 의미도 매우 기능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흔히 “이여도 사나”라는 대목이 띄어쓰기로 옮겨져서 마치 그것이 “이여도에 살리라”라는 뜻으로까지 곡해되거나 그런 암시를 풍기기까지 하는데, 그런 함의는 터무니없음이 드러난다. “이여도사나”에서 “-나”역시 “-도”처럼 “여씨 여씨”소리가 늘어지면서 따라붙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여도 흐라”의 경

27) 이여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성훈 역시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즉 그것은 ‘도’를 섬으로 보는 경우와, ‘돌다’의 의미로 보는 경우, 그리고 조흥을 위한 소리로 보는 경우 등이다.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2005), 117쪽 참고.

28) 근래에 이성훈도 이와 동일한 분석을 보인 바 있다.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2005), 116쪽 참고.

우도 마찬가지로다. 노동요의 후렴에 주목하면 “이여도 흐라”는 “이여도 흥”과 다르지 않다. 힘들여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 힘을 주는 대목이 있을 때 내쉬면서 올려야 하는 대목일 경우에는 흥음이 들어가는 기식음(息音)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여도 사나”에서 “-사나” 혹은 “싸나”와 기능상 차이가 없다. 줄다리기에서 “영차 영차” 혹은 “여씨 싸”하는 것과도 같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도”의 기능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쓰임이 대된다. <맷돌·방아노래>에서는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도 ㄱ래/ 이여도 방에”로, 타작노래에서는 “이여도흥”, 양태 노래에서는 “이여도 양태/ 이여도 맹진/ 이여도 탕근” 등으로 이여도 후렴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를 보면 맷돌, 방아, 망건 등 일거리의 목적 자체에 이여도 후렴이 따라붙고 있다. 여기에 이르면 “이여도”의 “도”는 더욱 투명해진다.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같은 후렴의 기능어로 보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의미가 되고 만다. “이여도 맷돌”이니 “이여도 방아” 하는 말은 이어도의 맷돌이나 이어도의 방아를 일컫는 말은 아닐 것이다. 노래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이여도 -”라고 두 박자나 두 음절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음절 어후렴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인데, 민요의 즉흥성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만약 다짜고짜 여기서도 “이여도”를 섬으로 이해한다면 그때 이여도는 제주도 자체의 별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애매성 속에서 이여도 후렴이 뜻 없는 후렴 소리에서 뜻을 가진 것으로 바뀌어가는 중간단계를 가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이여도”의 “도”가 명백히 의미를 가진 명사로 가면서 그 뜻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다. 그것은 제주말에서 “도”가 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먼저 다음의 가사를 보자.

이엿 문은 저승 문이여
이여도 질은 저승 길이여
가난 올 충 몰르더라
신단 보선에 불받아 농곡
입단 옷에 풀하여 농앙
애가 카게 지들려도
다신 올 충 몰르더라

(김영돈, 1번 자료)²⁹⁾

이 노래에서 이여도는 뚜렷하게 의미를 가진 가사처럼 구문을 이루고 있다. 단어로 보면 "이엿문"과 "이여도질"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이엿문은 저승문"이라는 구문의 "이엿"는 다음의 구절에 비추어 보면 "이여도"의 생략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여도는 저승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다음 구절까지 보면 이여도는 분명 저승과 같은 곳으로써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명백한 의미를 형성한다.

또한 "이엿문"이라는 말에 비추어 "이여도"에서 "도"는 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제주말에서 "도"는 "입구" 즉,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자어와 우리말의 병치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대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가 입구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제주의 지명에서는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마장도'는 목마장 입구라는 말이다. '큰곶도'는 큰 숲의 입구라는 말이다. 그리고 신화에서는 '도'가 신당이 위치한 장소나 그 곳의 신의 이름을 뜻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송당의 '백주도'나 서귀포의 '벼름옷도' 등에서 보듯 "도"는 신격의 이름일 때도 있고 그 신격이 좌정한 지역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가사에서도 이여도는 어떤 장소의 의미로 가정되고 있다.

29)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상)-자료편》, 4쪽.

점복 한 이여도
 메역 한 이여도
 점복이영 메역이영
 하이닝 우리 이돌
 공부시키키어 이어씨나
 이여도 가자 이여도

(김영돈, 924번 자료)³⁰⁾

그런데 이 가사에는 전래의 가사들이 담고 있는 분위기도 가락도 다. 오히려 근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 한 이여도, 메역 한 이여도”라는 가사에서 “이여도”는 후렴구가 아며 서술어가 꾸며주는 몸말로 기능하고 있다. 그것은 특정의 장소로 해산물이 풍부한 섬인 듯하다. 그러나 전복과 미역이 많은 곳은 포괄으로 섬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속에 잠겨있 바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중암초인 ‘여’를 기킨다고 볼 수 있다³¹⁾. 이중모음화 현상에 의해 ‘이여도’나 ‘이여도’ 혹은 ‘여도’는 동일한 음가로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 모두 이여도를 하나의 개념으로 먼저 설정한 다음에 도출되는 결과이 위의 노래에서도 ‘이여도는 섬’이라는 개념은 근래에 확정적인 해석 주어지고 난 다음 그 반대방향에서 구성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 가사의 근대적 분위기는 이여도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팔아 공부 시키겠다는 내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생스러워도 돈을 벌 자식공부를 시키겠다는 가사는 대개의 민요에 비추어볼 때 생소하다. 것은 20세기의 근대화와 더불어 소위 ‘자식공부’가 일생의 과업이 5

30)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상)-자료편》, 242쪽.

31)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에서 언급, 김은희 편 《이여도를 찾아서》, 에서 인용.

던 시대의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전래의 후렴에 근대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노래에서 이여도는 섬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흥의 후렴구로도 불려지고 있어서 애매하다. 이런 애매성은 이여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가창자들 자신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여도라는 말에서 도를 섬 도(島)로 해석하면서 생긴 혼란인 것이다.

그동안 민속학자들의 채록과 제주출신 소설가와 시인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제주출신이 아닌 소설가들의 작품 속에서 이여도는 전설의 섬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민속학자의 채록은 전설의 보편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요와의 관련을 보여준 그 밖의 사례들 역시 매우 불분명하거나 단조롭기는 매 한가지이다. 특히 전설과 관련된 노래라고 한 걸같이 언급된 민요는 단 하나에 그치고 있으며, 그 노랫말의 뜻이 그다지 뚜렷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여도에 가서 불귀의 객이 된 남편을 그리워하며 이여도 노래를 불렀다는 전설이 그 가사에 서렸다면 어찌서 이와 유사한 변이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기이한 일이다. 더욱이 제주민요의 거의 모든 갈래에 따라붙은 이여도 후렴이 간직했다는 그 전설이 어찌서 그토록 까맣게 망실되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위에서 인용했던 노래 이외에도 이여도를 지승으로 노래한 가사는 분명히 몇 편이나 존재하고 그것의 예술성도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랫말이 중국문화나 불교문화의 영향을 담은 내용으로 꾸며진다는 것이다. 여의주니 연꽃이니 하는 소재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 지표이다. 그리고 그런 가사에서도 이여도가 반드시 섬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³²⁾.

이여도의 다의성은 '도'라는 소리의 기능과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누

3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하)-이론편》, 471-472쪽 참고.

이지민서 생기났다. '도'라는 인이 형식이 의미발생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여도의 다의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노동요의 후렴 "어씨 어씨"에서 일의 피로가 쌓여감에 따라 느끼고 구슬픈 가락을 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후렴에 "도"를 덧붙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거꾸로 "도"라는 형태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 발생의 원이 된다. 특히 "도"의 다의성은 "도"를 한자음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별 뜻 없이 노동요의 후렴으로 붙은 소리가 한자음으로 해석되는 과정은 제주고유어와 고유문화에 대해서 한자 문화적 해석의 의지들이 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VI. 결론

이여도가 섬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배타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제주도 민요에서 이여도 후렴은 이미 보편적 바탕이고³³⁾, 전설의 섬 이여도라는 상상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는 것은 이여도 전설과 이여도 후렴이라는 두 가지 문요소의 관계인데, 이상에서 검토한 바 그것은 세 가지 견해로 정리된

첫째는 파생설의 견지에서 이여도 전설 쪽을 우선시하는 경우이다. 제시대에 이여도 전설을 채록한 다카하시는 이여도 전설을 소개하면서 제주민요의 이여도 후렴이 모두 이허도를 노래한 과부의 노래에서 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수백 수의 제주민요는 모두 이여도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여도 전설은 제주민요의 모태인 셈이지만 이는 민요의 발생원리와 후렴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33) 제주민요의 이여도 후렴은 한반도의 아리랑 후렴에 버금가는 문화적 지표로서 라고 있다. 줄고, <아리랑문화와 이여도 문화>(2005), <제주작가> 15호.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는 병존설이다. 이여도 전설을 확산시킨 근대 교육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구전 문화와의 거리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이여도 전설이 제주 민속의 민속에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요의 후렴 자체에 가치를 두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이 이에 해당된다. 김영화나 김영돈은 민간 전설의 채록이나 수용양상을 고려하면서 그것이 국지적임을 확인한다. 한편 민요의 음악적 원리에 착안하는 이성훈의 경우는 이여도 전설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부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여도를 저승으로 노래한 가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여도 후렴의 음악적 기능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는 통합설이다. 이여도 문제는 전설에서도 민요에서도 결국 “도”의 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여도가 제주민요의 기본적인 후렴이라는 점과 그 후렴과 관련된 전설이 인젠가 생겨났다는 점은 이여도의 동음이의성과 관련되어 있다. 기실 민중문화에서 단일음의 다의성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것을 단지 민중의 무지의 소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문화의 변천이란 단일한 대상이 다양한 해석과 가치를 낳으면서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이여도의 경우도 그것이 민요의 후렴과 전설이라는 별개의 근원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쪽이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제주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여도라는 말이 가지는 중의성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탕이라는 점이다. 물론 거기에는 한자교양과 중국문화와 불교문화의 영향이 개입한다.

이여도 전설이 생겨난 것은 근세의 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일제 강점기 무렵에는 몇몇 사립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특히 지식인들에도 알려져서 당시에 일본어로 문학을 하던 이시형이나 김이옥이 작품의 소재로 삼을 만큼 주요한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여도 전설이 민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서는 지식인들에 의

하여 빠르게 수용된 후 근대적 문학양식에 힘입어 거꾸로 민중의 사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여도 전설이 내용의 풍부함보다는 이념화된 특성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도 근대적 특성의 하나일 것이다. 이 모든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전설은 부인할 수 없는 제주문화의 유산이다라는 점이다.

장구한 세월을 걸쳐 형성되는 인류의 유산과 전통을 단일한 기원으로 상정하려는 것은 종종 무의미하다. 오히려 문화의 창조력은 기존 언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 의미의 심화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나중에 나타난 의미들이라고 해서 꼭 덜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의미가 형식을 요구하지만 그 형식이 새로운 의미발생의 기원이 되는 언어작용의 전도 문화 창조력의 원리이다. 제주문화에서 이여도가 환상의 섬이라는 의미의 연류는 길지 않지만 그러한 해석이 야기하는 문화적 가치는 매우 대한 것이다. 더욱이 이여도 전설이 학교교육을 통해 제주의 정신문명 인식되기에 이른 오늘날 이여도는 그 다의성 자체를 고유한 특성 유지하면서 문화적 창조성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여도 여전히 그 다의성 자체로 건재해왔기 때문이다.

주제어

이여도, 제주 민요, 전설, 파랑도, 다의성, 후렴

참고문헌

- 고 은, 《제주도-그 전체상의 발견》, 일지사, 1976.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상)-자료편》, 민속원, 1965.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하)-이론편》, 민속원, 2002.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이어도 2002.
- 김진하, <아리랑 문화와 이어도 문화>, 《제주작가》 15호, 2005.
- 다카하시 토루, 《제주섬의 노래》(좌혜경 옮김), 국학자료원, 1995.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이청준, 《이어도》, 열림원, 1998.
- 진성기, 《제주도 전설》, 백록, 1993.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5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제주도, 북제주군 편)》(현용준, 김영돈 조사), 1980.

Abstract

The polysemy of the refrain "IYEDO" and the IYEDO legends
in Jeju folk songs

Kim, Jin-

According to the local legends and traditional songs in Jeju island people have imagined the island "IYEDO" to be a paradise or the world beyond. Some others believed in the presence of a sunken rock "PARANGDO" and identified it with IYEDO. The discovery of PARANGDO in 1984 seemed to bring the problem IYEDO to a conclusion. But the existence of IYEDO in some legends and folk songs remains to be investigated in different ways.

What is IYEDO in the refrains of Jeju folk songs? The IYEDO legends are the same to the refrain IYEDO? In fact all these questions have relations to the polysemy of "-DO" in IYEDO. The sound "DO" has many meanings in Jeju language. The sound "DO" usually means island, which is interpreted in a sense of Chinese character. In other cases, "DO" is simply the part of refrains in folk songs. And also among these interpretations it is possible to think out some other ambiguous meaning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s of IYEDO are essentially the results of the polysemy of "DO".

In people's lives and cultures, polysemy and synonymy are important origins of tales and imaginations. In Jeju language, the sound "DO" in IYEDO has many cultural values. The coexistence of IYEDO both in legends and folk songs proves its capability to produce various narrative literatures and lyrical songs.

Key Words

IYEDO, Jeju folk song, legend, PARANGDO, polysemy, refrain

교신: 김진하 158-0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길 236 (목6동 911-2) 양정고등학교
(E-mail: jobana@hanmail.net 전화: 019-306-4010)

최초 투고일 2005. 12. 23

최종 접수일 2006. 1. 31